

# 4월, 「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감시」 시작!

- '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천, 경기북부, 강원 지역 50개 지점 감시
- 매개모기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을 통해 매주 제공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국내 말라리아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위험지역(인천광역시, 경기도강원도 북부)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및 말라리아 원충 감염여부 조사를 시작(4.3.)한다고 발표하였다.

「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」은 4월부터 10월까지(31주간) 위험지역 내 50개 지점에서 모기 채집을 수행하고,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발생 양상과 원충보유를 확인하여 제공함으로써 말라리아 재퇴치 및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

## [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]



말라리아 매개모기인 '얼룩날개모기(*Anopheles* spp.)'는 전체적으로 흑색의 중형(中形)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으며, 휴식 시 복부를 40~50°의 각이 되도록 복부를 들고있고, 촉수가 주둥이 만큼 긴 것이 특징. 유충은 논, 수로, 웅덩이 등에 물 표면에 수평으로 서식하며, 암컷 모기는 산란기 야간에 소, 말,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함(흡혈활동시간 19시~05시).

## [ 중국얼룩날개모기의 머리와 날개 특징 ]



이 사업은 국방부 육군본부,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,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,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감시개시 후 매주 목요일 ‘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’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.

\*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/발간자료/실험실소식지 : <http://www.npt.kdca.go.kr>

모기 채집은 유문등을 이용하여 민간지역 36개 지점에서 7일 동안, 군부대 14개 지점에서는 2일 동안 채집한 모기를 모기지수\*로 환산하여, 발생량의 변화를 확인하고, 모기지수 및 환자발생을 기준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.

\* 모기지수(Trap Index, TI) = 채집된 모기 수 / 유문등 수 / 채집 일 수

### [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]

#### [주의보]

-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(TI)가 동일지점에서 처음 2주 연속 2이상인 경우

#### [경보]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

- 시군구 내 군집사례 또는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 첫 발생 시
-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
-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(TI)가 동일지점에서 3주연속 4이상인 경우

말라리아는 열룩날개모기속(Genus *Anopheles*)의 암컷 모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약 430종의 열룩날개모기가 분포하며, 우리나라에는 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. 그 중 6종\*에서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확인되었고, 나머지 2종\*\*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.

\* 중국열룩날개모기(*Anopheles sinensis*), 레스터열룩날개모기(*An. lesteri*), 잿빛열룩날개모기(*An. pullus*), 클레인열룩날개모기(*An. kleini*), 벨렌열룩날개모기(*An. belenrae*), 가중국열룩날개모기(*An. sineroides*)

\*\* 한국열룩날개모기(*An. koreicus*)와 일본열룩날개모기(*An. lindesayi*)

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위험지역 해당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해 유충서식이 가능한 물웅덩이 제거 및 환자 발생시 집중 방제를 적극 수행하고, 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모기활동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및 모기접촉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을 실천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### <말라리아 예방수칙>

- ▶ 국내에서 모기가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(일몰 직후~일출 직전)에 야외(낚시터, 야외캠핑 등) 활동 자제
- ▶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,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,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
- ▶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, 실내에서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
- ▶ 말라리아 위험지역(다발생 지역)에 거주하거나 방문여행 후 발열, 오한,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말라리아 검사를 받을 것

- <붙임> 1.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감시지점  
 2. 2022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감시 결과  
 3. 말라리아 관련 질의응답(Q&A)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희일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사	신현일 (043-719-8525)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황경원 (043-719-7160)
		담당자	연구사	이소담 (043-719-7175)

□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

- 3개 시·도의 50개 지점(민간 36, 군 14)에서 매주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및 원충감염률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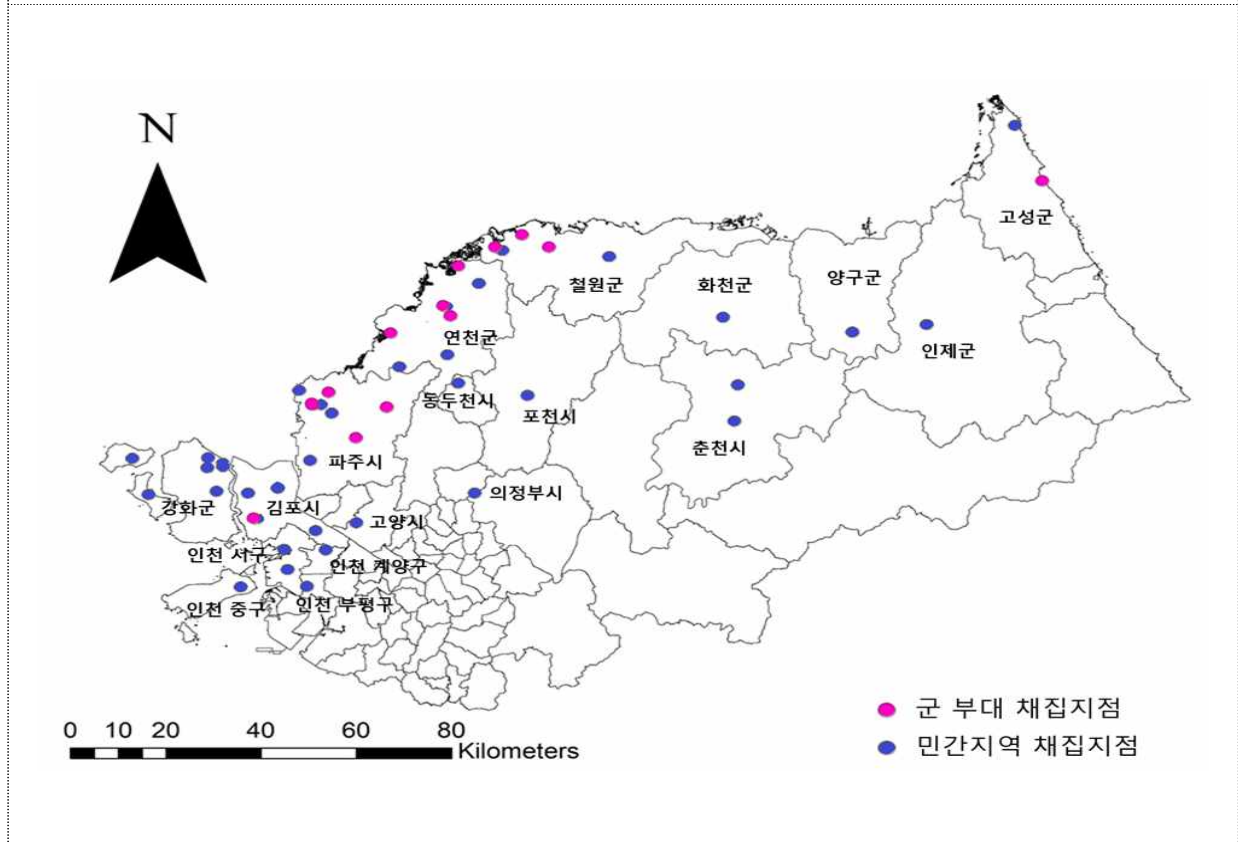
유문등(민간지역)



LED트랩(군지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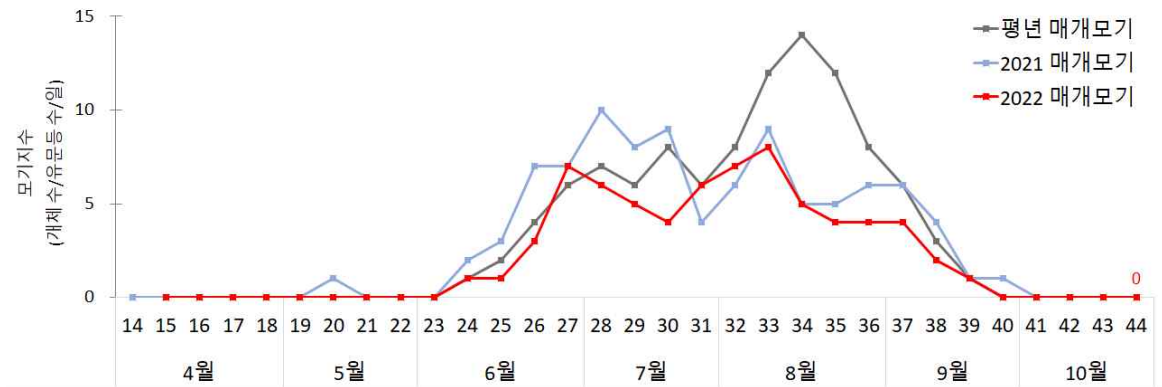
감시사업에 활용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기구

**<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>**



□ 2022년 주별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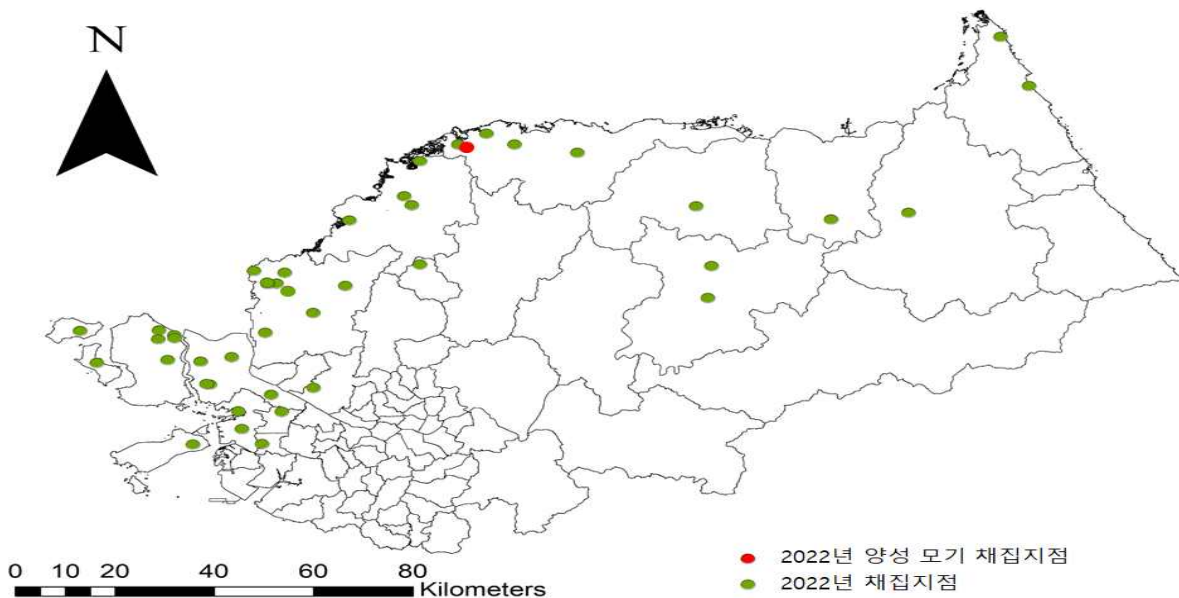
- 매개모기 발생 감시 결과, 6월 말(27주차), 8월 초(33주차)에 정점을 보임
- 2021년과 평년(2017~2021) 대비 발생 감소(모기지수 '21년 94 → '22년 68)



\* 모기지수(Trap Index, TI) = 채집된 모기 수 / 유문등 수 / 채집 일 수

□ 2022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충 양성 현황

- 2022년 37주차에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에서 채집된 모기(1pool)에서 삼일열말라리아가 검출됨



**Q1.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?**

-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, 원충이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를 파괴합니다.
-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,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.

**Q2.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?**

-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은 오한, 고열, 발한 등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.
-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, 두통이나 구토,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

**Q3.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?**

-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, 즉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·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-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,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.

**Q4.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?**

- 국내 위험지역은 휴전선 인근지역인 인천광역시, 경기도·강원도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.

**Q5. 매개모기의 주요활동시간대는 언제인가요?**

-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흡혈활동 시간은 일몰 직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을 통해 흡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\* 주요 흡혈 시간: 19:00~05:00(계절별 상이)